



봉우 컬럼

알곡과 쪽정이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한다. 첫 번째로,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두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로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 보여서 놀란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교되어 나온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천국에 갈 자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경건했으며,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자였다. 누가 봐도 합격점이다. 반대로 세리는 압제자인 로마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로 못 백성의 원성을 샀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세리)이 의롭다'(눅18:14)라고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목사로 지낸 자가 죽은 후에 구천을 헤매는 것을 보았다. 또 몇몇 곳에 교회를 지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보았다.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속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충분한 이유를 보신 것이다. 사람은 번지르르하고 깨끗한 회칠한 무덤만 보지만,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 속에 더러운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속에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일 수도 없다.

알곡과 쪽정이는 같은 땅에서 자라나 알곡은 추수 때 창고에 들어가고 쪽정이는 한 곳에 모아 태워버린다. 우리가 속까지 충실한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코람데오) 합당한 믿음과 성품이 되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첫사랑을 잃으면 이별뿐이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길어요. 예배 좀 짧게 해주시죠."

"뭐? 예배가 길다고? 자네 예전에 연애할 때는 애인과 만나 밤새웠었지? 전화 끊네."
"네...?"

우리 교회가 예배시간이 너무 길다고 나를 목사님께 교회부흥을 위해 조언한다며 어느 장로가 한 말이라고 한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이 전화통화를 소개하시며 모두가 듣고 깨닫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식은 거죠.

첫사랑을 잃으면 이별뿐입니다. 그런데 영적 신랑 예수와의 이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와의 이별은 지옥입니다. 지옥! 실컷 예수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리라'(계2:4~5).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직장을 달라, 사업터를 달라, 결혼하고 싶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는 울며불며 뜨겁게 난리치더니 정작 응답을 받고는,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일 좀 해주라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누가 복음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발을 사서 나가봐야 하고,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하고, 장



회개하고 첫사랑을 되찾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과 첫사랑을 나눌 때 어땠습니까? 시간 불문, 거리 불문이었죠? 몇 시간씩 전화통 불붙고 이야기하고, 밤을 새어가며 사랑을 속삭이고, 애인이 만나자면 거기가 어디든 시간, 거리 불문하고 달려가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 첫사랑에 불탔을 때 어땠나요?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달려오지 않았던가요? 예전에 학생체육관 금요일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밤을 새워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직장 출근해서도 피곤한줄 몰랐다면 기뻐하지 않았던가요?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 신랑 예수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전도했었죠? 그런데 '예배나 기네, 거리가 너무 멀네' 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 병이 든 겁니다. 첫사랑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좁은 길(마7:13~14)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처자,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눅14:26).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다가는 어느새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물이 따뜻하다고 퍼져 있다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세상과 짝하다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은 자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

가들어서 못 간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단 한사람도 천국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딱 결론을 내버리십니다(눅14:16~24).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말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심각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영적 신랑 예수와의 행복한 결혼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마귀의 체계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랑 예수와 이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천국을 향한 긴 여정에서 단 한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전6:1~2)

쥐도 못 쓰는 것은 악이다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전6:1~2). 쥐도 못 쓰는 것은 악한 병입니다. 이는 인색함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병원 심방을 가서 보면 돈도 많은 사람이 6인실 구석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다면야 가슴이 아프겠지만, 넘치게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궁상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1인실로 옮기라고요, 그 돈 갈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못 쓰냐고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할 수 없지요. 초라하고 궁색하게 살다 가야지요. 이것은 마치 어느 부자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갔는데, 그 아들이 그 돈을 깊은 곳에 잘 모셔놓고 정작 자신은 먹을 것을 사지 못해 굶고, 헐벗어 거지 신세가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돈을 줄 때는 맛있는 것도 사먹고, 좋은 옷도 사입고, 자동차도 사서 타라고 주는 것이지, 넣어놓고 궁상을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느 여자가 병으로 죽게 되자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옷장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예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쁜 옷을 놔두고 왜 매일 피죄죄하게 입고 살았어?” 하며 딸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아끼느라 그랬다. 아빠가 좋은 옷을 사줘도 아끼느라 못 입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며 후회했습니다. 솔직히 그 남편이 사줘도 안 입는 옷을 사주고 싶었을까요? 아마 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누리지 못하고 궁상을 떨다면 더 큰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안 주고 싶을 겁니다. 있는 복도 빼앗고 싶을 겁니다. 어차피 누리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옷이 여러분보다 오래 삽니다.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이 당신보다 오래 삽니다. 아낄 게 아니라 누리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아끼다가 똥 된다’고 했지요. 성경에도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잠11:2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니 베갯속에 돈이 가득했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비싼 베개 베다가 가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쓰다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베개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인색한 것도 죄요, 악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인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구제에 인색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미국의 빌 게이츠는 1998년도부터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분을 위한 가난한 자들의 복지와 교육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찾아와서 “빌,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 게이츠는 깨닫고 ‘빌 앤드 멜린다’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 수입의 6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면 나누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색한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

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9:6~8).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즐겨 내면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돈을 쓸 줄 아는 자에게 더욱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갑니다(딤후6:7~8). 그러나 등기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등기이전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 쌓은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으며, 손 털 염려도 없습니다(마6:20).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

질을 쓰면 하나님은 이자까지 넉넉히 쳐주셔서 더 풍족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지식이나 기술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땀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간 돈과 시간이 아깝지요. 지식을 갖췄으면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에 이바지해야 그것이 참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기술이나 실력도 안 쓰면 똥입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빠는 광목은 늘 뽀얀데, 며느리는 아무리 열심히 문질러도 누렇게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웃기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급해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꼭 짜서 탈탈 털어라.”

고 말해줬답니다. 비법이 있으면 나눠야 서로 이롭지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의 비리를 알고는 채근하자 청지기는 ‘쫓겨나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어디 가서 살지?’ 하며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봐도 딱히 할 일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 빚을 삭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백말을 빚진 자를 불러 오십 말이라 쓰라하고, 밀 백석 빚진 자를 팔십 석이라 쓰라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쓸 줄 안 겁니다. 주님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다소 있지만, 주어진 권한을 써서 남에게 후하게 인심을 썼더니 나중 자신도 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써야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써야 더 큰 능력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하셨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고 하셨습니다. 묵혀두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고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줬으면 많이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색함은 악입니다. 악을 인격화하면 마귀일진대,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복을 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주주의 혜택

어떤 기업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을 성장형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수익이 들쭉날쭉한 경기민감형 기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중공업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경기민감형 기업의 주가수익비율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수익비율보다 낮습니다. 이들 기업의 수익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지만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주주들의 혜택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선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을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점포를 개설하고 공장을 증설하며 이전보다 이익 성장을 빠르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여유자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거나, 사옥을 이전하는 등 외형을 확대하고 장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급여를 올리거나 다른 기업을 비싸게 인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지출은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지요. 셋째는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을수록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낮

은 가격에 매입하면 주주들에게는 큰 이익이 됩니다. 마지막 선택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많은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그만큼 설비 등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이 100%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은 주주들에게는 큰 이익이 됩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주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요. 위의 네 가지 선택 가운데 회사의 이익을 직접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은 배당금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소득을 원하면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이 제격이지요.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으며, 또한 배당금은 심리적인 위안도 줍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거나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겁에 질려 주식을 팔아서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혜택은 어떠한가요? 성령을 주셔서 권세와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들어 쓰라고 주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엄청난 혜택을 자녀된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습니다.

이미경 권사

:: 성경에세이 ::

신뢰받는 자가 되라

여보게!
내가 사람 자라는 도통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걱정하고 좀 해야겠네.
우리 장로 중 한 사람인데, 이분이 건설업을 크게 하고 있지. 자네도 알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달릴 때가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은가. 이분도 그런 상황이 되어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업가가 자기 발로 찾아와 거금을 빌려주었다지 뭐냐. 기도의 응답이지.
그 후에 돈을 빌려주었다던 사업가와 골프를 칠 기회가 있어서 그분께 ‘우리 장로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더니만 그분하는 말이 “목사님, 그 장로는 정말 반듯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 마디로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돈을 빌려줬지요.”라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는데 왜 내가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은지... 내가 잘 가르쳤다 싶었네.
자고로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하네. 신용이란 말이나 행동이 믿을 만하다는 뜻 아닌가. 연행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용 있는 자라네. 그런 사람은 팔로 메주를 쏠대도 믿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못 믿을 사람이 있지.
여보게!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은 사람만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잘못된 자도 신용불량자라고 나는 생각하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경영하지 못해서 시간약속을 못 지키는 자도 신용불량자이고, 자기 현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리수를 두다가 낭패를 보는 자도 역시 신용불량자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신용이 있어야 한 다네. 아담처럼, 사울처럼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신용불량자의 삶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 자는 그 사업가가 내 앞에서 장로를 자랑하듯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자랑하실 거라네.
신용을 쌓는 일은 정말 어렵지만, 신용을 떨어트리는 일은 한순간이지. 그러니 늘 자신을 관리하게나. 경영은 관리요, 관리 는 점점임을 잊지 말게나.

朋友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약5:9).
원망(怨望)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한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때, 누군가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을 때 종종 현실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성을 퍼붓는다. 원망, 남 탓하는 마음의 근저에는 ‘자기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그르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나는 옳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는 누군가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기에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0~12). 성경은 원망을 한 껴풀 벗기면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과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인내가 요구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원망은 사라진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인류가 변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 내 안에서 원망은 사라질 것이다.

김성일 집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스승의 말이 쉽지

최근에 수영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보통 6개월이면 자유형부터 배영과 평영을 거쳐 접영까지 다 배울 수 있다. 그 6개월이면 되는 강습 기간을 나는, 7년째 진행 중이다. 요즘에는 꽤 늙어서 매일 수영을 할 때, 스스로 다짐을 한다. ‘자, 오늘도 온몸에 힘을 빼자!’ 몸에 힘을 빼고 수영을 시작하는 날에는 강습이 참 재미있다. 하지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시작한 날에는 수영장 물을 잔뜩 먹거나 도중에 발에 쥐가 나고는 한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운동이 그런 것 같다. 기초 동작을 배우고 조금씩 진도가 나가면, 몸의 중심을 최대한 낮추어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힘을 빼고 집중을 하는 것. 거기서부터 배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말이 쉽지, 힘을 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쌓였다는 것을 이제 안다.
며칠 전, 기초 라인에서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발차기를 하다 허우적대는 강습생을 보았다. 그녀에게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뜰대며 내가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그녀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렸다. 그 모습이 지금의 힘들고 곤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며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나의 모습과 같았다. 매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나는 내 얕은 지식과 의지로 몸부림치며 버둥거렸던 것이다. 그렇게 인간힘을 쓰며 하루하루를 버티니 매일이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의지는 내려놓고 내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우러러 믿고 따라야 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31)라는 말씀처럼.
수영을 시작할 때처럼 매일 다짐을 해야겠다. ‘자, 주님 앞에서 힘을 빼자.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수영장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상급생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전훈지 집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증인들의 고백

세상에 가장 공평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건강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누구나 한번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 말합니다. 태중에 아기가 자신이 10개월 동안 머무는 엄마의 뱃속이 전부이며,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줄 알다가, 때가 되면 상상도 못한 더 큰 세상으로 나오게 되듯,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란 평등한 관문을 통과하면, 결국 더 광대하고 영원한 영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의 세계는 성경이 기록할 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목도한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골 마을에 살던 4살 소년 토드는 심한 복막염으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엄마는 교회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목사인 아빠는 예배당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지요. 극적으로 살아난 토드는 회복된 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

다. 본인의 영이 빠져 나와 수술실에 의사, 밖에서 전화로 기도를 요청하는 엄마, 울부짖는 아빠의 모습까지... 말해준 적 없는 당시의 상황을 두루 봤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낙원에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아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토드가 된 적이 없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으며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사진과 이름을 정확히 증언합니다. 더불어,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던 엄마에게도 젊은 시절 유산되었던(비밀이었던) 아기를 만났다고 말하지요.

아빠가 이 사실을 주변에 증거하자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영의 세계는 없다고, 당신이 신비주의 목사로 변질되었다고요. 토드의 가족은 거주하던 동네와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내쫓김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아빠는 과감히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키아나라는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 유치원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살이 되던 해부터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전하며 이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지요. 세계 20대 화가에 선정될 만큼 놀라운 그림을 그린 그녀가 8살이 되어, 자신이 본 예수님의 그림을 40시간에 걸쳐 그리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앞서 간증한 4세 토드가 이 예수님의 그림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That’s him(그분이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증언처럼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으며, 죽음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 시작 뒤에 찾아올 진짜 영원한 세계를 위해, 부디 지금의 힘든 삶을 포기하거나, 지금의 부요함에 자만하지 않고, 오늘을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Good News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어려워진 생활을 돕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이나 홍보전단, 그리고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

나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는 나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불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일로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영생에 이르는 길 ::

상속자의 자격

저는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회사를 노력 없이 물려받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직원들과 못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도 후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구조를 배웠고, 틈틈이 재테크를 통해 자본금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을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사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재산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상속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노력과 경험들, 그리고 조언해주시는 부모님의 경험들이 축적된 노하우와 지혜가 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를 의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 아들에게

유언으로 논 깊은 곳에 보화를 감춰놓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보화를 찾기 위해 논을 갈아엎었고, 보화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왕 엮어놓은 논에 모를 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되어 풍성한 곡식을 거둔 두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노력하면 거두게 되는 진리를 아버지는 유산으로 물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그냥 물려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났으며, 온갖 핍박과 모함을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사람들 손에 넘겨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동산을 그냥 받았습니다. 아담은 너무 손쉽게 얻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결국 쫓겨나 죽을 때가

지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상속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고 갈 테니 유산은 없다고요. 재물보다 값진 유산도 별써 받았고, 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대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 땅에서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갈까요? 재물로 상속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로 절반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과 등록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늘에 쌓은 재물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열매는 당연히 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마6:19~20). 심지어 좋은 땅인 하늘에 심었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주실 테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김대화
realdialog@naver.com

기본에 충실하자

섬기는 부서에서 평신도교육을 맡게 되었다. 새신자 교육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기초내용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식물, 사람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소개하고, 기존신자 교육에서는 ‘성령님과 영의 세계’에 대하여 예수중심교회가 가진 영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교회의 뜻에 입각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친다. 이 두 가지 교육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총회장 목사님의 저서 ‘기본에 충실하자’가 필수 교재라는 것이다.

이 교재는 교회 안내데스크에서 천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억만금보다 더 뛰어나다. 실제 청년들이 이 책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서 기존 물량은 품절이 되었고, 재판인쇄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이 책을 통해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소신 및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영의 세계를 쉽게 알게 되었다.

나도 처음부터 이 목사님의 저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아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지체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더 알기 쉽게 알려주고 싶고, 기존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회복함을 알려주고 체험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많은 기독교 서점을 뒤지고 다양한 교재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총회장 목사님의 저서 ‘기본에 충실하자’였다. 그야말로 목사님 설교에 등장한 물속에서 물을 찾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왔다. 그리하여 다시 책 ‘기본에 충실하자’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와 ‘영의 세계’를 책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설명하고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시며 사모해야 한다고 많은 지체들에게 교육하였다. 그랬더니 성령을 교육하는 나부터 영이 살아나고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을 회복하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느꼈다.

법과 원칙대로 살 때 평안이 있고, 기본이 충실해야 높이 쌓을 수 있다. 기도와 말씀, 기본에 충실하여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예수중심교인이 되자.

송현혜

